

## 위기의 한국 “신뢰의 끈 다시 묶자”

정치·경제·사회 등 곳곳에 불신투성  
“되돌아보고 추스릴 때 희망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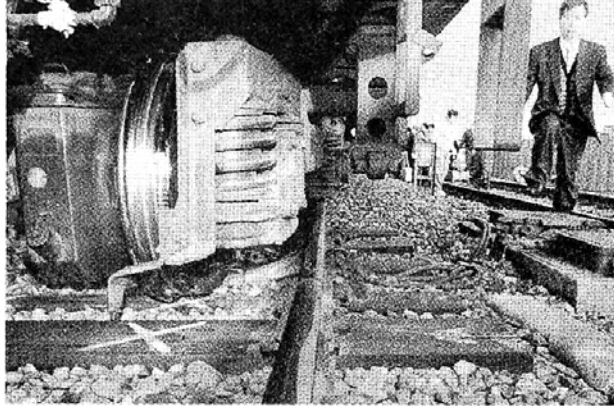
국제사회에 돈을 빌리고 우리는 그 대가로 경제신탁통치를 받아야 할 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사회는 금융, 경제의 어려움이 아니라 문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서울의 지하철은 매일 사고를 내고 있다. 전동차수리용 화차가 레일에 방치돼 기관차와 부딪히는 여차구니 없는 사고까지 났다. 자동차세의 유용·유행, 공무와 관련된 입수한 정보로 평투기에 나섰다. 보합금을 챙기려 부인을 살해하는 극악한 인륜과괴를 보고 있다.

어렸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직무를 유기하면서도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국가의 내일을 짊어지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선거판은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졌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각 정당과 대선후보 진영의 대변인은 정치공해를 뿜어내는 쓰레기소각장의 굴뚝같은 느낌을 준다”는 독설이 패감을 느껴야 할까 말이다. 시민의 발은 안전을 의심해야 하고, 국민이 공무원을 믿지 못하는 형국이다.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국민이 후보들의 공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36년 동안이나 고정간첩 활동을 해왔던 ‘두 얼굴’의 세상에 살고 있다. 최근의 각종 사건·사건의 원인은 우리 사회

의 심리적 공황에 기인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그 후유증은 국민들 사이의 불신의 벽을 높인다는 데 있다. 말 그대로 공든 탑이 무너지고 신뢰의 끈은 토막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하다. 우리 사회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탄식이 곳곳에서 들린다. 희망마저 버리지는 말자는 호소가 아닐까. ‘백 투 더 60년대’란 말이 과장이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경제불안과 국가적인 정체성의 상실을 벗어날 수 없다. 현실은 비관적 일지라도 미래는 우리들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음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신뢰를 불어넣어줘야 할 종교계도 너무 정치놀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추스릴 때이다.

정성운 기자



불교의 관민고종책해야 반영한다

«각종 사건·사고는 그 자체보다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데에 심각성이 있다. 범침선 지하철은 시민불안과 당국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 이슬람원리주의자 관광객 테러

70여명 사상...반인륜적 범죄 ‘세계 경악’

종교의 이름으로 끔찍한 살육 사건이 벌어졌다. 이집트의 세계적인 관광지 룩소르에서 17일 70여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가 발생해 온세계를 경악케 했다. 사건 발생 직후 이집트의 최대 반정부 이슬람근본주의 무장조직인 ‘이슬람그룹’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테러도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은 ‘베고자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슬람원리주의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지하단체에 의해 저질러졌다. 이슬람그룹이 관광객들을 테러대상으로 삼은 것은 매년 35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져다주는 관광산업이 무바라크 정권을 지탱해주는 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이집트 방문을 삼가라고 경고했다.

## “종교언론 타종교 보도 신중하게”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언론인 ‘결의’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 언론인 30여명은 15~16일 경기도이천 설봉호텔에서 ‘종교간 화합을 위한 종교언론의 역할’ 심포지엄을 갖고 타종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하기로 하는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등 인류의 공동선을 추구기 위해 공동실천방안 강구 △타종교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보도를 통해 상호 대화와 화합을 지향 △종교언론의 질적 향상 추구 △종교계신문 공동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동기구 구성은 불교기자 협회를 비롯해 각 종교언론 한 국종교인평화회의의 문제부 실무 대표들이 이후 모임을 갖고 진행하기로 했다.

## 월드컵대표팀 불우추구인에 성금

월드컵 본선 4회연속 진출을 달성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포상금 일부를 불우추구인들기 성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차범근감독과 선수들은 15일 대한축구협회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받는 자리에서 “본선진출은 선배들의 땀이 밀거름이었던 만큼 후배로서 조금마한 정성을 표하자”고 뜻을 모아 1인당 1백만원씩 3천만원을 모았다.

## ‘의학계 에디슨’ 모교 10억 기증

세계 의학계의 에디슨으로 불리는 윤인배박사(61·미 존스홉킨스대 부설 외과연구소 객원교수)가 최근 모교인 연세대를 방문해 의과대학 발전기금 10억원을 기증했다. 연세대는 이 기금을 내시경수술 연구센터 건립에 사용할 계획이다. 윤박사는 64년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의학계 관련 특허를 1백50여개 취득했다.

## 폐수처리 획기적 기술 개발

한국과학기술원 수질환경, 연구센터와 촉매화학연구실이 난분해성 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 개발했다. 연구팀은 18일 이 시스템을 염색폐수처리장에 설치해 실제 폐수를 처리한 결과 유기물과 부유물은 90~95%까지 처리됐고,

부영양화의 원인인 질소 제거율도 기존의 방법보다 4배나 향상됐다고 밝혔다.

## 경찰, 음주감지기 사비 구입 말성

성남 분당경찰서가 음주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속소 경찰관들에게 사비로 음주감지기를 사도록 지시한 사실이 18일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지시에 따라 이 경찰서 소속 9개 과속소에서 개당 15~20만원씩 하는 음주감지기를 과속소마다 2~3개씩 구입했다.

## 주민대책위 쓰레기반입 수회

김포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가 수도권지역 기초단체장들과 폐기물처리

## 생활정보

### 가정폭력 3차 신고로 처벌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나 자녀를 구타하는 부모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제삼자의 신고로도 형사처벌된다. 또 상담이나 직무를 통해 가정폭력행위를 알게된 의료기관이나 상담소의 대표자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

### 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 학교폭력예방 비디오 출시

초등학교, 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유형과 대처 방안을 안내한 비디오 드라마 ‘꿈이 있는 교실’이 시리즈(8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수)로 제작돼 출시됐다. (02)233-6751

소각 쓰레기중 수분함량이 높은 음식물이 절반을 차지, 보조연료의 사용량을 높여 다이옥신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각장에 투입되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46.6%로 절반에 이른다. 환경부가 최근 음식물류의 오염도와 정화에 필요한 물의 양을 조사한 결과 △된장찌개 한컵은 물 7백50리터 △우스기 한잔 물 3천리터 스커피 한잔은 물 1천8백리터가 필요하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 경전의 ‘음식편’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 모든 불자들이여, 음식을 대할 때에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며, 좋은 것은 취하고 맛 없는 것이라 싫어하지 않아, 마땅히 몸을 지탱하기 위해 서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라. <불교경>

■ 맛있는 음식을 보면 마음을 경계하고, 무미한 음식을 보면 탐욕을 버려야 한다. <화엄경>

■ 음식과 옷은 향락의 수단이 아니라 소중한 몸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옷은 더위와 추위를 막아 몸을 보호하고 치부를 가리며, 음식은 깨달음과 불성을 성취하기 위해 수양할 때 양생(養生)을 목적으로 먹는다. 이런 사고에서 는 속된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 <일체유량>

■ 다른 사문과 바라문들은 남의 신시(信施)를 받고도 다시 저축하기를 구하며 의복과 음식에 만족할 줄을 모르지만 사문 고모타마는 그러한 일이 없다. <법동경>

■ 비구도 또한 그와 같이 6근(根)의 말을 듣고 안하여 실수가 없다. 그는 이와 같은 성계(聖戒)를 가져 깨끗한 모든 근(根)을 얻은 것이다. 음식은 죽한 줄 알고 또한 맛을 탐하지 않으며 몸을 길러 괴로움과 근심을 없게 할 것이다. <아미타경>

■ 의복과 음식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선정에 들어 반성하여서, 죽한 줄을 알아 최소한의 것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법구경>

■ 밥을 씹은 물은 함부로 버리지 말라...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말라... 뜨거운 물을 땅에 함부로 버리지라, 아무데나 불을 피우지 말라. <사분율>

■ 보살은 온갖 고기를 부모의 피와 살로 생각해야 한다. 짐승이 고기 먹는 사람을 대하면 놀라고 두려워 하니 고기를 먹는 것은 짐승과 큰 원한을 맺는 일이 된다. 보살은 자비를 베풀고 중생을 거두어주기 위해서라도 먹지 말아야 한다. <능가경>

■ 수행자는 웃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세가지 웃만 가지며, 먹는 음식에 대하여 때아닌 때는 먹지 않으며, 머무는 곳에 대하여 나무위에 거한다. <불설십이두터경>

■ 음식을 보시하면 큰 힘을 얻고 의복을 보시하면 좋은 얼굴을 얻으며 수레를 보시하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보시하면 밝은 눈 얻고 집에서 손님을 기다리면 그것을 일러 일체 보시라 하고 법으로써 중생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곧 단아술 보시라 하느니라. <잡아한 시하대력경>

■ 비구도 또한 그와 같이 6근(根)의 말을 듣고 안하여 실수가 없다. 그는 이와 같은 성계(聖戒)를 가져 깨끗한 모든 근(根)을 얻은 것이다. 음식은 죽한 줄 알고 또한 맛을 탐하지 않으며 몸을 길러 괴로움과 근심을 없게 할 것이다. <아미타경>

■ 의복과 음식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선정에 들어 반성하여서, 죽한 줄을 알아 최소한의 것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법구경>

■ 밥을 씹은 물은 함부로 버리지 말라...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말라... 뜨거운 물을 땅에 함부로 버리지라, 아무데나 불을 피우지 말라. <사분율>

■ 보살은 온갖 고기를 부모의 피와 살로 생각해야 한다. 짐승이 고기 먹는 사람을 대하면 놀라고 두려워 하니 고기를 먹는 것은 짐승과 큰 원한을 맺는 일이 된다. 보살은 자비를 베풀고 중생을 거두어주기 위해서라도 먹지 말아야 한다. <능가경>

■ 수행자는 웃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세가지 웃만 가지며, 먹는 음식에 대하여 때아닌 때는 먹지 않으며, 머무는 곳에 대하여 나무위에 거한다. <불설십이두터경>

■ 음식을 보시하면 큰 힘을 얻고 의복을 보시하면 좋은 얼굴을 얻으며 수레를 보시하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보시하면 밝은 눈 얻고 집에서 손님을 기다리면 그것을 일러 일체 보시라 하고 법으로써 중생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곧 단아술 보시라 하느니라. <잡아한 시하대력경>

■ 비구도 또한 그와 같이 6근(根)의 말을 듣고 안하여 실수가 없다. 그는 이와 같은 성계(聖戒)를 가져 깨끗한 모든 근(根)을 얻은 것이다. 음식은 죽한 줄 알고 또한 맛을 탐하지 않으며 몸을 길러 괴로움과 근심을 없게 할 것이다. <아미타경>

■ 의복과 음식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선정에 들어 반성하여서, 죽한 줄을 알아 최소한의 것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법구경>

■ 밥을 씹은 물은 함부로 버리지 말라...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말라... 뜨거운 물을 땅에 함부로 버리지라, 아무데나 불을 피우지 말라. <사분율>

■ 보살은 온갖 고기를 부모의 피와 살로 생각해야 한다. 짐승이 고기 먹는 사람을 대하면 놀라고 두려워 하니 고기를 먹는 것은 짐승과 큰 원한을 맺는 일이 된다. 보살은 자비를 베풀고 중생을 거두어주기 위해서라도 먹지 말아야 한다. <능가경>

■ 수행자는 웃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세가지 웃만 가지며, 먹는 음식에 대하여 때아닌 때는 먹지 않으며, 머무는 곳에 대하여 나무위에 거한다. <불설십이두터경>

■ 음식을 보시하면 큰 힘을 얻고 의복을 보시하면 좋은 얼굴을 얻으며 수레를 보시하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보시하면 밝은 눈 얻고 집에서 손님을 기다리면 그것을 일러 일체 보시라 하고 법으로써 중생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곧 단아술 보시라 하느니라. <잡아한 시하대력경>

■ 비구도 또한 그와 같이 6근(根)의 말을 듣고 안하여 실수가 없다. 그는 이와 같은 성계(聖戒)를 가져 깨끗한 모든 근(根)을 얻은 것이다. 음식은 죽한 줄 알고 또한 맛을 탐하지 않으며 몸을 길러 괴로움과 근심을 없게 할 것이다. <아미타경>

■ 의복과 음식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선정에 들어 반성하여서, 죽한 줄을 알아 최소한의 것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법구경>

■ 밥을 씹은 물은 함부로 버리지 말라...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말라... 뜨거운 물을 땅에 함부로 버리지라, 아무데나 불을 피우지 말라. <사분율>

■ 보살은 온갖 고기를 부모의 피와 살로 생각해야 한다. 짐승이 고기 먹는 사람을 대하면 놀라고 두려워 하니 고기를 먹는 것은 짐승과 큰 원한을 맺는 일이 된다. 보살은 자비를 베풀고 중생을 거두어주기 위해서라도 먹지 말아야 한다. <능가경>

■ 수행자는 웃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세가지 웃만 가지며, 먹는 음식에 대하여 때아닌 때는 먹지 않으며, 머무는 곳에 대하여 나무위에 거한다. <불설십이두터경>

■ 음식을 보시하면 큰 힘을 얻고 의복을 보시하면 좋은 얼굴을 얻으며 수레를 보시하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보시하면 밝은 눈 얻고 집에서 손님을 기다리면 그것을 일러 일체 보시라 하고 법으로써 중생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곧 단아술 보시라 하느니라. <잡아한 시하대력경>

■ 비구도 또한 그와 같이 6근(根)의 말을 듣고 안하여 실수가 없다. 그는 이와 같은 성계(聖戒)를 가져 깨끗한 모든 근(根)을 얻은 것이다. 음식은 죽한 줄 알고 또한 맛을 탐하지 않으며 몸을 길러 괴로움과 근심을 없게 할 것이다. <아미타경>

■ 의복과 음식은 목숨을

건강하고 아름답고 자연미의 미비 미감을 추구합니다.

# 신도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自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미! 이제 세안·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오보크린은 알부민프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 (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료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상신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인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한방재료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도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 추천의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인 고성능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인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기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 내

첨단의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